



〈사진설명〉장애인 사역팀에서는 '소리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믿음구역 청각 장애우에게 디지털 보청기를 전달했다.

오늘, 제직수련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서울장신대학교 문성모 총장 인도|



문성모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

오늘 오후 3시 30분 지하 중예배실에서 2007제직수련회가 열린다. 2007년도 주님의 교회의 모든 제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련회는 문성모 목사가 인도한다.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인 문성모 목사는 사도행전 2장 42-47절의 말씀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적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특별히 직분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제직 수련회의 대상은 2007년도 제직으로 부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해당된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와 같은 항존직 직분자들은 물론 서리집사,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등 각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사역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한 제직

들은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모임 후에는 권사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준비된다고 한다.

수련회 강사인 문성모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 신대원(M.Div. Th.M.)을 졸업하고 Köln, Münster, Osnabrück Universitä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교단신학교인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정애 기자)

〈항존직 감담회〉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 모으기로...



지난 1월 21일 셋째 주일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교역자들과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모여 공석 중인 담임목사 초빙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현 목사의 시작 기도와 함께 참석자들의 교회를 위한 통성기도가 간절히 드려지고 이어서 청빙위원회의 대표로 권오승 장로가 그동안 진행되어온 경과보고를 하였다. 보고가 있는 후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 의견을

듣고 난 후 청빙위원인 문창복 장로가 세부적인 설명을 더하면서 전교인은 물론 특히 항존직 직분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권오승 장로는 현재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2월 말까지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그 기간 내에 더 좋은 의견이나 추천이 있으면 참고하기로 하고 참석한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자고 당부하였다. 끝으로 정희성 목사와 참석자 모두가 하나님께 담임목사를 속히 보내주실 것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간담회를 마쳤다.

(김기용 홍보출판부장)

30CUP특강

성경의 ‘사랑’과
대중가요의 ‘사랑’
- 언어학적 접근

오늘 1시 15분 제3집회실
김용진교수(숭실대영문학)

어와나 클럽

교사 컨퍼런스
2월24일 토 10:00 향상교회
학부모설명회
2월25일 주일 13:30 3층 소년부실
어와나클럽 오픈(볼디, T&T)
3월3일 토 15:00 3층 소년부실

도서 반납함 설치	2면
교육사역본부 특집	3,4면
1학기 양육클래스 안내	5면
청소년 사역본부 보고	6면

로 템 나 무

택시 기사님을 통해 은혜주신 주님

1월 첫 주일 아침, 소한 추위로 매서운 날씨에 2부 예배를 거의 마칠 무렵에 정문에서 차량안내로 분주 할 때에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손님이 내리나 했더니, 운전기사가 내렸다. 손에는 검은 여성용 장갑을 들고 나에게 다가온 그 운전기사는 양재동에서 일부러 이곳 우리 교회까지 손님도 안태우고 급하게 온 사연을 성명해 주었다.

한 여자 분이(아마도 예배 오신 우리교회 성도인 것 같다.) 아침에 주님의교회 앞에서 내렸는데 장갑을 뒷좌석에 놓고 내리셨고 다른 손님을 태우고 양재동까지 갔을 때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로 달려 왔다고 했다. 방송을 해서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기사분의 나이는 60을 조금 넘기신 것 같았다. 정신없이 분주한 틈에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통해 각박한 요즘 세상에 보기 어려운 일을 체험할 수 있었다. 조그마한 물건이라 모른 척 해도 될 일이었지만, 시간이 돈인 운전기사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장갑의 주인을 찾아 온 모습을 보고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란다!!"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황남효 집사, 주차봉사부

※요람 사진 및 정보 최종 확인※

2007 요람에 실릴 개인사진 및 정보확인이 서쪽 복도에서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 2007. 1.21 2부 예배 기도문

한 해가 가고 움 같이 우리의 생명도 가고 오는데 그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흠으로 인간을 빚으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령이 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지 않았다면 흠덩이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 됨을 주장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입술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가까운 내 가족에서 시작하여 온 나라에 가득함을 붙잡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호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으로부터 이 나라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7년은 우리나라와 교회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을 향한 소망과 실망을 앞 다투어 너무 많이 말하였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도 손가락질하였으며 우리 주님의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눈물 흘리셨겠는지요. 죄송합니다. 기도보다 말을 앞세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소망 가운데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대통령을 주시옵고,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눈

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가 기름지고 배불리 낮은 자와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함께하신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고, 주님의 교회 벽돌 된 우리 하나하나가 준비되지 않아 담임 목사님 청빙이 늦춰 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목소리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찬양의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며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편만하게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드리기를 기뻐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은성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상하고 찢긴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심으로 성전 문을 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더 이상 뒤엎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꼴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의 입술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영숙 권사, 1-12

"묵은 것은 좋지 않다..."

지난 1월 25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신화식목사가 누가복음 5장 36절~39절 ‘묵은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보통 사람들은 익숙하고 오래된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성경은 유연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다. 누가복음 5장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금식논쟁’과 ‘의원(醫院)비유’에 대한 일화가 전해진다. 당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금식을 하는 것이 관례였고, 죄 있는 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관습에 어긋난 일이었다. 정신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외형만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절타하며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결혼식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일갈했다.

물론 율법이 나쁜 의도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퇴색되고 형식만 남아, 외형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신화식 목사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마는 존재라고 전했다.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약한 존재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자신’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

(최사라 기자)

오늘 기도



주는 주의 일을 복음케 하옵소서

〈도서실 사역팀〉 도서반납함 설치, 어린이 영어 기독도서 구입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 30분, 신천의 한 음식점에서 25명의 도서실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도서실 봉사는 사역의 특성상 요일별, 시간대별로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자들끼리도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지냈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 자기소개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어 송인준 집사는 십진분류표에 의하여 책을 서가에 꽂는 방법을 설명했고, 박진영 집사는 컴퓨터 자료입력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2007년도의 도서실 운영의 가장 시급한 사업계획으로는 낙후된 컴퓨터의 교체, 재고파악 등이다. 재고파악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청년부원들과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마무리했다. 또 이동용 도서 중 만화는 비치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어린이용 영어기독 만화를 구입하여 비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서실에는 1만여 권이 소장되었는데 그중에 어린이용이 3천여 권 정도이다.

1월초에 도서실 문밖에 도서반납함을 설치하여서 도서실 근무시간 외에도 책을 반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서실 자원봉사를 하기원하는 성도는 최정숙탐장에게 (016-470-0806)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도서실사역팀)

나의신앙이야기

어르신들의 추운겨울, 사랑으로 녹여드릴게요!



2006년 12월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중랑사회복지관 독거어르신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내복 100벌이 기증되었다. 외롭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유난히 힘들고 추운 겨울이기에 주님의 교회 성도

님들의 사랑이 더 큰 빛을 발했다.

“이렇게 좋은 내복은 명절에나 입어야지..”

올해로 80순이신 정○○어르신은 내복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어도 내복을 입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있다. 왜 내복을 아직까지 입지 않았는지 여쭙어보자 “이렇게 좋은 내복은 명절에나 입는 거지... 아껴서 오래오래 입을 거야.”라며 아주 고운 미소를 보였다. 주님의교회와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내복은 정○○어르신과 같은 독거어르신 100분에게 소중하게 전달되었다. 권승환집사, 복지사역팀

썩트네(통합유아부)

-부서장:최정윤, 교역자:김수연



썩트네의 사랑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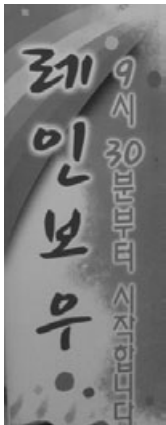
‘썩트네’는 통합유아부로 주일날 오전 9시 30분에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다. 3세 이하는 씨앗반, 4세는 새싹반, 5세는 봉오리반, 6세는 꽃잎반, 7세는 열매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게임과 찬양, 예배, 공과공부로 썩트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러 연령대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학습하고 동생들은 배우고 따르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도, 가장 많은 사랑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장 권사를 비롯해 모든 교사들이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있다. 말씀으로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썩을 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썩트네’의 마음이다. 주일날 오전 9시 30분, 지하 1층 썩트네실에서는 ‘썩트네’와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레인보우(통합아동부)

-부서장:이열, 교역자: 김성목

레인보우는 유치부실 1층에서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된다. 마침 유치부실을 찾았을 때 아이들은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가 끝나길 기다리던 이열 부장을 만났다. 올해의 사업계획을 묻자 ‘내 어린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맡겨 주신 어린 영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과 수고의 손길로 섬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무지개 빛처럼 다양한(1~6학년)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형성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의 임재를 전도하는 영성이 충만한 레인보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영아부(24개월 이하)

-부서장:이열, 교역자: 김성목

참 행복해 보였다. 아기의 편안함과 집사님의 따뜻한 돌봄은 한 폭의 예술작품이었다.

희망의 트랙, 미래 교육사업본부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본 교회 각 사업본부는 하나님의 절대 절명의 명제인 가르치고 양육 하기 위해, 대륙을 횡단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준비한 계획을 발표하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번에는 교육사업본부를 취재했다.

교육사업본부는 본부장 이영자 장로, 본부위원 김원중 최상인 장로피택자, 교역자에 정요섭, 김현령 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영자 본부장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교회의 미래의 주인인 유청소년이 받아 바르게 성장하여 주님의 교회 파수군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각 부서 일꾼들과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며 말했다.

한편 김원중 최상인 본부위원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은 정요섭, 김현령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각 부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의 행정과 사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1층 영아부실 앞 복도에 들어서자 신발장과 창틀에는 귀여운 아기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24개월 이하의 아기들이 예배드리는 영아부실이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아기도 있고, 부모님과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기들은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기들을 맞이하는 교사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교사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며 따뜻한 손길을 펼치고 있었다. 진정 천국은 여기인 것 같았다. 올해의 사업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집사님은 내 영혼에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순수함을 이 아이들에게서 회복하겠다고 말하며 특별히 사업계획이란 것이 없고 아이들의 건강은 무슨 일이 있든지 지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아부(48개월 이하)

-부서장: 권이홍, 교역자 :전은숙



1층 유아부실에서는 4~5세 어린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개구쟁이 친구들은 유아부실에 들어오면 헌금을 하고 교사와 두 손을 꼭잡고 기도를 드린다.

다소곳이 무릎꿇고 앉아 기도드리는 모습은 진지하기

까지 한다.

유아부 부서장 권이홍 집사는 아이들을 섬기는 자세로 교사들이 결석하지 않고 충실히 봉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치부(취학전)

-부서장 :박지원, 교역자:김성민

주일 오전 11시30분 지하 유치부실에서는 6~7세 취학 전 어린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있다.

유치부 박지원 부서장은 올 한해 유치부 교사들의 다짐을 첫째, 무조건 순종하자 둘째, 꾸준히 기도하자 셋째, 주님께 고침을 받으면서 섬기자 라고 전했다.



유년부(1,2학년)

-부서장: 박기운, 교역자 :이희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007년 유년부의 교육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어린이"(민32:12)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린이가 되고,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경험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찾아서...

님의 뜻이니라. <살 5:16-18> 2007년도를 맞이
베리아 열차처럼 성령의 열기를 내뿜으며 기도

목사가 봉사하고 있으며 16개 사역팀으로 나누
교회안에서 보호받고 충만한 가르침과 돌봄을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부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부서 사업은 부서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추



유년부 부장인 박기운집사는 이러한 유년부의 모든 어린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유
년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도하기, 말씀암기, 찬양하기, 전도
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신앙생활 훈련
을 소개 해주었다.

초등부 (3,4학년)

-부서장 :강응순, 교역자: 최락



샬롬~!

초등부는 2007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요(요 15:5)”를 비전으
로 삼고 있다. 우리는 열매에 초점
을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결실
의 비결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다. 따라서 우
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과 함께 교육목표에 있어서 예배, 찬양의 활
성화와 반별 나눔 및 분반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수의
아이들이 아닌 모든 초등부 아이들이 교사와의 관계 속에
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
게 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유소년 축구팀

-부서장 :이용수, 교역자:정요섭



건강한 몸, 경강한 영혼! 봄과 가을이 되면 정신여자중고
등학교 운동장에서 힘찬 함성이 울린다.

주님의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둥근 축구공을 차올리
며 운동장을 질주한다. 골이 터지면 멋진 세레머니도 잊지
않는다.

2003년 가을학기부터 시작된 유소년 축구팀이 올해로 4
년째를 맞는다. 세종대체육과교수인 이용수집사가 지휘봉
을 잡고 같은대학 체육과 학생들이 실제적인 훈련을 맡고
있다. 또한 헌신적인 자원봉사 집사들의 사랑으로 유소년
축구는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어른들은 이들을 위해 기꺼이 좁아지는 주차장의 불편함을
감수한다. 유소년축구는 3월초에 오픈한다.

AWANA 사역팀

-부서장:최성진, 교역자:전미이



어와나는 "부끄
러울 것이 없는 인
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이모데 후
서 2장 15절의 말
씀을 영어성경의
첫글자를 따서 만
든 이름이다. 어와

나클럽은 약 50년의 역사동안 연구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선교기관으로 세계 115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나라에서 주요한 지도자들을 양성해 냈다. 그동안 불
티단만을 운영해 오던 주님의교회 어와나는 올해 처음으로
T&T를 발족시킨다. T&T는 10-13세 어린이가 참석할 수
있으며 심화된 말씀교육과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부

-부서장: 동현수, 교역자 :윤은성

2007년 리더십의 부흥을 꿈꾸며~

주님의 교회 청년공동체는 2007년을 리더십 부흥의 원
년으로 선포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끌
어갈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사명으로 하는 청년공동
체는 청년들의 자발적 리더십의 실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수요일리더십학교와 매월 팀장리더

쉽터와 훈련을 통해 리더십의 성숙과 부흥을 꿈꾸고 있다.

특별히 청년리더십의 형성을 위해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직장,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의 4가지 훈련 영역을 설정
하고 2년간의 과정으로 매학기 각 영역을 훈련하는 수요일
리더십학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청년 공동체를 담당하는
윤은성 목사는 청년 공동체의 주사역과 모임인 주일 청년
예배와 매일 새벽부흥기도회, 토요 영적 대각성 집회와 수
요일리더십 학교 훈련만으로도 시대를 이끄는 청년 리더십
으로 성숙해 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30대사역팀

-부서장:김용진, 교역자: 김현령



교회 안팎의 숨어 있는 30대
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사회와 교
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양성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소외
된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이르게

하는 것이 30CUP의 비전이고 목표이다. 30CUP은 시작한
지 채2년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교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
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다.

30CUP은 지난 3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겨울 수련회
를 열었다. 30여명의 참석자들은 진지함 가운데 기도의 삶
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하며 나누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
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실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오늘은 30CUP 부장인 김용진 집사가 '성경의 사랑
과 대중가요의 사랑' (언어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30CUP특강을 한다.

교회는 흔히 유기적 존재라 한다. 능력있는 한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
실 것이요, 그것이 곧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 한다. 본 교회에는
많은 인격체들이 곳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맡은 직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나 눈비가 오더라도 아무런 동요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특별히 중시할 것은 청소년의 방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
려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지만 때때로 질풍노도의 번민을 갖고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과 정신적 고뇌를 감추고 눈빛으로만 하
소연할 때가 있다. 이때 좀 더 예수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관찰해 아픔이 있으면 이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
야 할 것이다.

또 교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은폐시키는 방어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잘못된 따름하게 바로잡아주고
예의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공
부하기 위해 교회에 내보내는 것을 주저한다는 믿지않는 사람
들의 고백이 통용되어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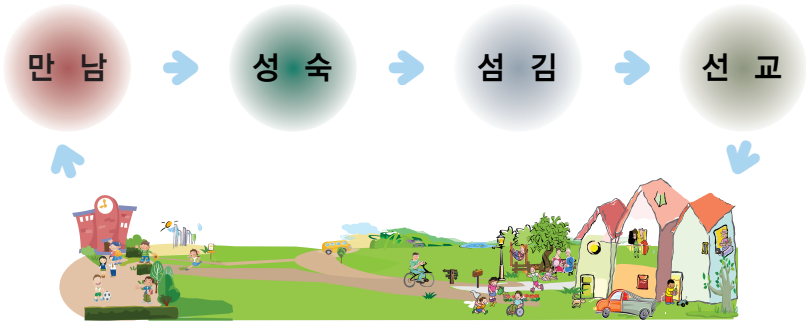
※학원선교팀, 방과후 학교 청소년 사역본부 기사는 6면에 계속
되고 이번 취재에 빠져있거나 재 취재가 필요한 부서는 다음호
에 이어집니다.

(취재 :소옥민, 허진, 신형섭, 하태원기자 정리 하태원기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3월 4일부터 과목별 개강!

주님의교회 양육과정은 봄과 가을, 신앙과 문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합니다.
 이 과정은 믿음의 기초와 교회생활의 안내, 성경의 이해, 말씀의 실천, 복음의 전파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부 과목은 교회에 낯선 이웃에게 복음전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각 과정개요

2007년 1학기 양육클래스

100

만남 Coming to Christ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의미와 방법을 알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생활과 소그룹 모임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이웃을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필수과목 (새가족 모임 세례교육 구역모임)
 선택과목 (다양한 문화강좌)

200

성숙 Learning in Church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이해합니다.
 성경은 무엇이고 구체적이고 무엇을 이야기 하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제는 어떠한 것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필수과목 (구역개요, 신약개요, 출발 그리스도인
 나의 은사와 소명 찾기)
 선택과목 (개별성경, 신앙성숙)

300

섬김 Working for Community

성경의 지식을 삶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신앙훈련입니다.
 나의 영적인 재능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통한 봉사와 섬김의 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사역자와 리더로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필수과목 (피택자 수련회 구역 이끄미 모임)
 선택과목 (중보기도 세미나,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습관)

400

선교 Going with Christ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낯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관계성 가운데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필수과목 (선교학교)
 선택과목 (해외 단기선교, 한국 기독교 선교사)

1. 각 과정은 필수 및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가 강의를 맡습니다.
2. 원하는 강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은 선수과목이 없습니다.
3. (장기적으로) 필수과목이수는 부서 / 팀장 임명 및 임직자 선거추천의 기준이 됩니다.

과정	과목		강사	시간	장소
100 만남	새가족모임	필수	양육교사	주일 2,3부예배 후	2층수련실
	세례교육		정희성	주일 13:30	초동부실
	구역모임		구역이끄미	주중	구역별
	동양화		정남희	수 10:30~12:30	작은 식당
	생활꽃꽂이		최진옥	목 10:30~12:00	작은 식당
	말씀서예		정도일	화 10:30~12:00	작은 식당
	아프티임강좌		다수	화 14:00~15:30	초동부실
	생활공예 두루뎅수리		함예련	화 10:30~12:00	썩트네실
	신디반주법		최영순	목 10:30~12:00	썩트네실
	현대사회와 레크레이션		정요섭	화 10:30~12:00	유치부실
	환경학교 2기		외부장사	수 10:30~12:00	세미나실
	윌트이야기		김경순	목 10:30~12:00	대학의방
	중국문화의 이해		김삼화	화 10:30~12:00	소회의실
200 성숙	구약성경의 이해(구약개요)	필수	이호	화 10:30~12:00	초동부실
	신약개요		김현령	목 10:30~12:00	5층 찬양연습실
	출발, 그리스도인		정영환	주일 13:30~15:00	소년부실
	나의 은사와 소명찾기		우동윤	목 10:30~12:00	초동부실
	성경일독반		정영환	화 10:30~12:00	5층 세미나실
	해답을 찾는 이들의 모임 (신앙적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세미나)		이창현	주일 13:30~15:00	5층 세미나실
	종말의신비, 교회 (요한계시록 집중연구Ⅱ)		박의일	화 10:30~12:00	지하 찬양연습실
	영어성경공부 Level 1		나현수	목 10:00~11:30	5층 세미나2실
	영어성경공부 Level 2		나현수	목 11:00~12:30	
	일본어성경 Level 1		신영숙	금 10:00~11:00	소회의실
	일본어성경 Level 2		신영숙	금 11:00~12:30	
	그리스도인의 정신건강		김광일	목 13:00~14:30	당회원실
	요한의 눈으로 본 예수님		정희성	목 10:30~12:00	대회의실
	구원론		신화식	목 14:30~16:00	5층 찬양연습실
	300 섬김	피택자수련회	필수	교역자	추후공지
구역이끄미모임		교구별		수요일예배후	교구별장소
중보기도세미나		정영환	4월중시작	추후 확정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습관		정요섭	목 10:30~12:00	세미나실	
400 선교	선교학교	필수	선교본부	토 17~19시	3집회실
	해외단기선교		선교본부	7~8월중	해외선교
	한국기독교선교사		윤은성	금 10:30~12:00	당회원실



봉사부원모집

봉사부사역은 주일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아신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한형석 안수집사 017.348.3790

예배 안내 위원 모집

예배부는 주일 1-4부 예배에서 성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예배 안내 위원을 모집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은 물론 안내부 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역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 강진식 안수집사 011.9728.6579

1부 오전 7:00-8:30 2부 오전 8:50-10:30
3부 오전 10:50-12:30 4부 오후 1:00-2:30

서점, 책이 있는 실만한 물가



봉사사역본부 서점사역팀(팀장 장득순 안수집사 피택자)에서는 여러 기독교 관련 교양서적과 교우들로부터 필요한 책을 신청받아 정가에서 1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생기는 판매수입금 전액은 교회 운용수익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1월27일)에는 서점사역팀원모두가 하루 종일 서적 재고파악을 하고 진열대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우들의 많은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 요람발행

2월 25일 주일 2007 교회요람이 발행됩니다. 구역장은 교역자를 통해서 구역 세대수 만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는 요람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함글함글을 통해 교회부서를 홍보하거나 사역팀원을 모집하기 원하시는 분은 hamnews2006@naver.com 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글함글 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Misson 함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등긱갈’은 맞는 표기일까요?

우리말 표기의 가장 큰 원칙은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글을 보고 읽어서 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루’와 ‘배’를 합쳐서 만들면 ‘나루배’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나루배’라고 쓰면 [나루배]라는 소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이시옷’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넣어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이시옷을 넣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 ①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
 - ② 그 두 단어 중 하나는 반드시 고유어일 것
 - ③ 원래에는 없었던 된소리가 나타나 ‘ㄴ’ 소리가 덧붙을 것
-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사이시옷’을 넣는답니다.

(이정애 기자)

소리로 전하는 사랑

믿음구역 청각 장애인들에게 디지털보청기 지급

1월 28일 장애인 사역 팀에서는 4교구 믿음구역 청각장애인 6명에게 디지털보청기를 지급했다. 디지털보청기의 성능을 알아보려 청력측정을 할 때는 기대 반 우려 반 긴장된 분위기였다. 디지털보청기를 착용하여 처음 듣는 소리와 크게 잘 들리는 소리에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그 조그만 물건에 놀라며 매우 기뻐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설립된 ‘아름다운에프엔’ (최귀옥 집사 6-5구역)과 독일 ‘아우디폰’사의 많은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아름다운

에프엔은 독일 ‘아우디폰’사와 함께 전국의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협력을 통해 청력장애로 듣기가 매우 어렵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보청기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 디지털 보청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리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님의교회에서는 중랑구복지관(관장 박동수 집사), 하프사역팀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귀옥 집사 6-5구역)

주님과 한마음으로 차세대의 청소년에게 집중하기 위하여
청소년사역본부 2005, 2006년 보고 (요약)

- 학원선교팀 팀장: 이창성 교역자: 정요섭
- 방과후학교 팀장: 이종은 교역자: 정요섭
- 청소년사역본부 부서장: 김완중, 교역자: 정요섭

1.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의 배경

우리 교회는 2003년 창립 15주년을 즈음하여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부터 실현하는 길을 찾기로 하였다. 그 중 한 가지 비전인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2004년 1월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하 비전팀)을 결성하고, 격변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비전팀은 2004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을 보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20여 차례의 자체 세미나, 초청 강연, 현장 탐방,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 비전팀 자료집”을 출간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을 교회가 직접 추진할 사역과 협력 및 지원할 사역으로 나누어, 모범적인 교회학교 모형 구축, 방과후학교 운영, 청소년리더십스쿨 운영, 청소년 사역 단체와 협력 및 지원 등의 중점 사역과, 대안학교와 청소년사역원의 설립과 운영 등의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다.

2. 청소년 사역의 현황

첫째 해인 2005년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을 위하여 교회학교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육 전임 목회자로 홍민기 목사를 청빙하여 모범적인 교회학교 모형 제시를 위한 사역에 들어가는 한편, 부모-교사 기도모임(PTP),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었다. 청소년 리더십 사역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의 비전트립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는 크리스천 지도자의 소양을 훈련했다. 또한 “전국 청소년 전문 사역자 대회”를 통해 청소년 사역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 사역 기관인 브릿지임팩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신학원과 동화학원을 비롯한 학원선교를 지원하고, 풍성중학교 등에서 상담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인 학원선교를 실천했다.

둘째 해인 2006년에는 2005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갔다. 특히 교회학교와 PTP를 통한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 사역은 큰 결실을 맺었다. 교회학교 학생이 2년 사이에 1,600여 명으로 부흥함으로 차세대를 치유하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청소년사역본부는 2006년 12월 9-23일 2주간 중국 허남성 남양에 위치한

예방선교공동체 청소년을 초청했다. 이들은 회교권과 힌두권을 위한 자비량 선교를 목표로 3년 이상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영성 훈련과 개간 노역을 하고 있다. 청소년 사역본부는 간디청소년대안학교와 함께 이들이 한국의 교회와 사회를 관찰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과 시설의 방문을 주선하였고, 문화 체험을 통해 위로와 휴식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예방선교공동체의 지체들은 우리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었다.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의 현장인 방과후학교는 2005년 3월에 시작하여 현재 매주 토요일 학생 50여 명과 교사 30여 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신여중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5년에 국어(논술, 언어영역), 수학, 영어(문법, 독해, 듣기), 과학, 플러트, 미술, 프랑스어 등의 수업으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일본어, 중국어, 사회, 피아노, 영어성경 등의 수업이 추가되었다. 정규 수업 외에도 시험이 끝난 주간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견학, 영화 관람, 강습, 크리스마스 파티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또한

풍성중, 정신여중의 상담 활동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열매도 맺고 있다. 2007년에 들어 고등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방학 특강으로 주중 수업도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고 있다.

3. 맺음말

우리 청소년사역본부가 지난 두 해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2007년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사역원이 현실화되고, 그리하여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시편 22:26-27)” 우리 청소년사역본부는 차세대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날이 다가올 것을 바라본다.

글/이희숙 원사
정리 및 요약/박철호 집사